

전시 EXHIBITION

#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MMCA Collection: Korean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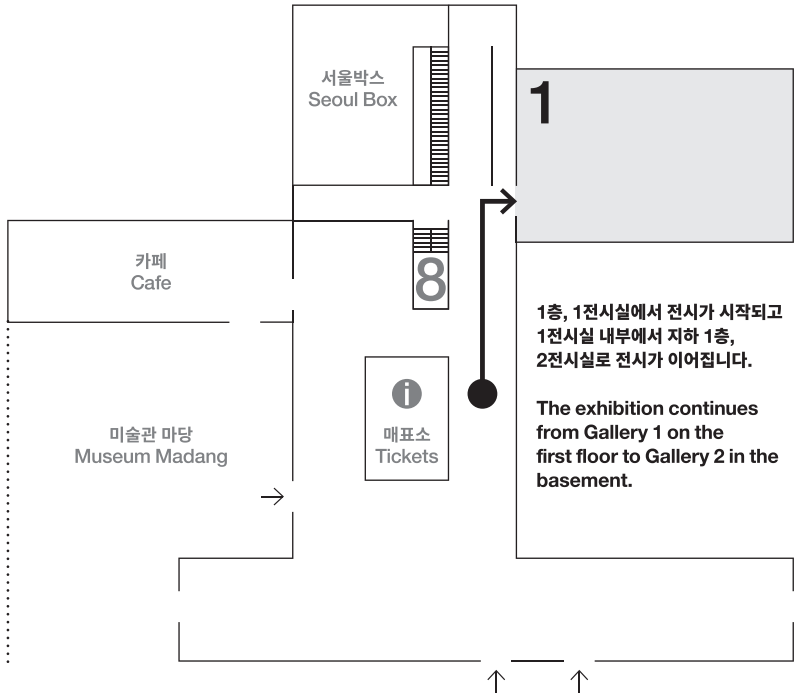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2전시실  
MMCA Seoul Gallery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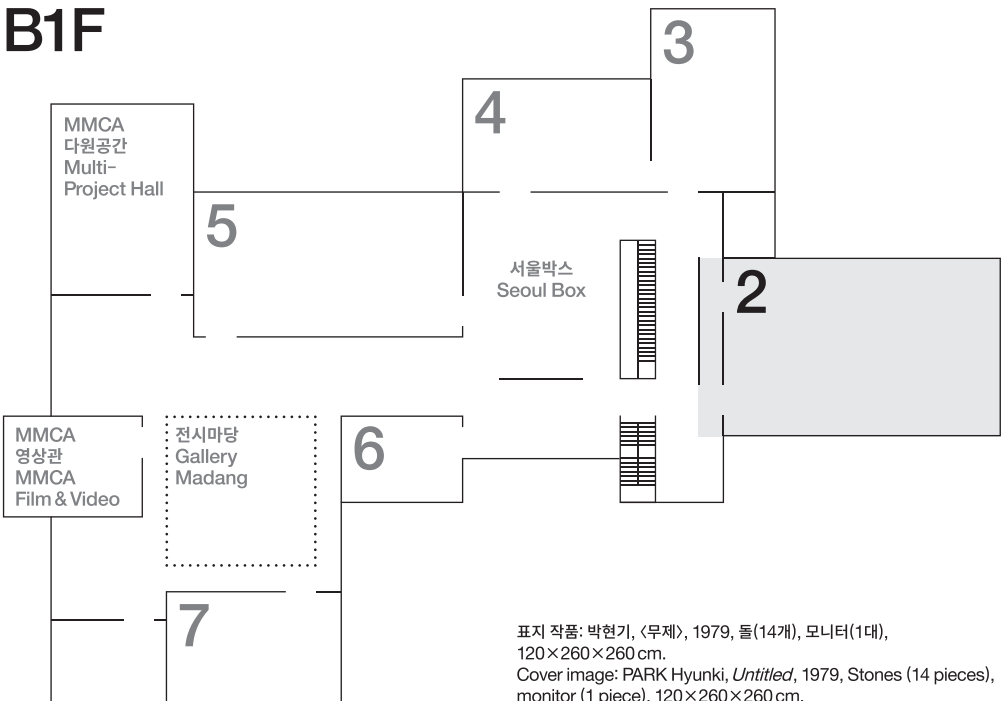
2025.5.1.-  
[www.mmca.go.kr](http://www.mm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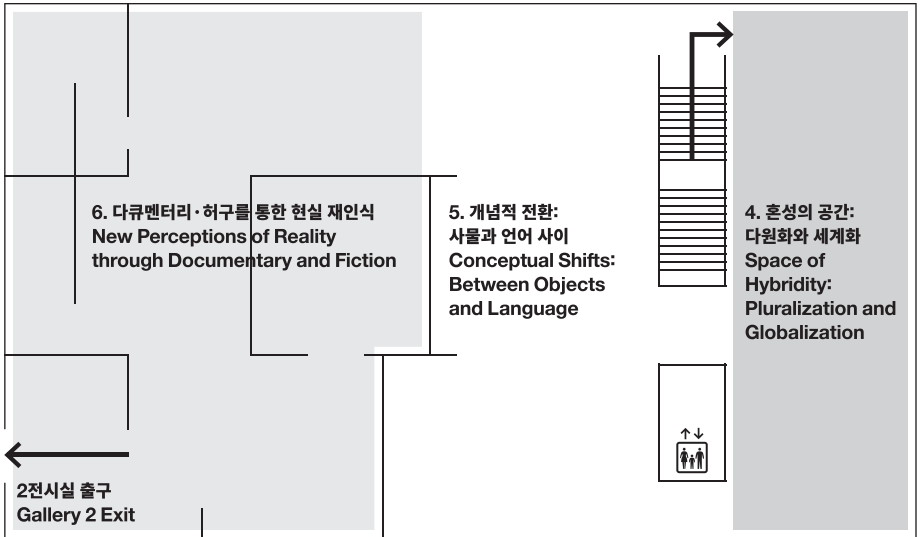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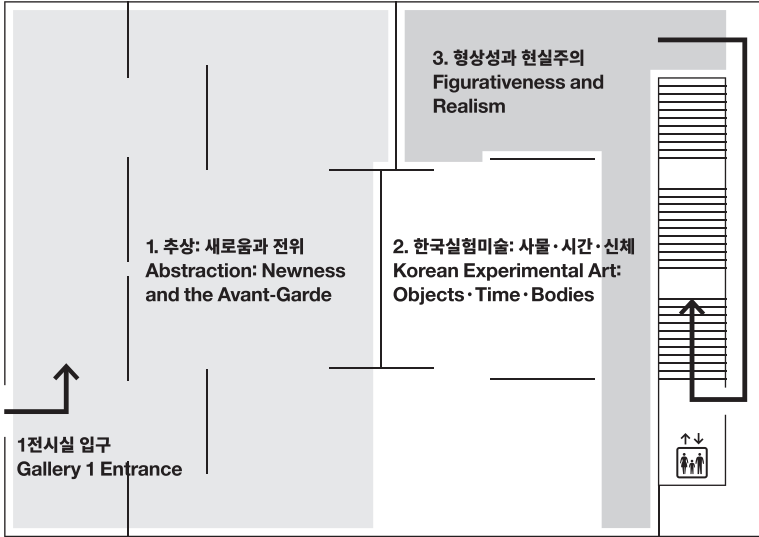


# 1F



# B1F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시해설을 들어보세요.



Scan QR codes to listen  
exhibition audio guide.



扫二维码听展示解说



## MMCA 서울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이번 전시는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후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 미술사와 동시대미술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작품과 아카이브를 수집, 연구해 왔다. 이번 전시는, 11,800여 점에 이르는 미술관 소장품 중 196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 9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추상, 실험, 형상, 혼성, 개념, 다큐멘터리와 같은 소주제를 중심으로 선별된 대표 소장품들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에게 시대에 따른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소개한다.

한국 현대미술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 상황과 문화 변동, 그리고 매체 변화 및 당대 국제 미술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1전시실에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품들이 전시된다. 현대성과 전위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한국 추상미술을 시작으로, 사물성과 행위를 중심으로 미술의 영역을 확장했던 실험미술, 그리고 예술을 삶의 문맥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형상미술과 민중미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전시실은 199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는 한국 동시대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다원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동시대 국제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던 한국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을 비롯하여, 사물과 언어를 중심으로 한 개념적 작품들,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허구의 맥락 속에서 현실을 재인식하고자 했던 일련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복잡한 지형도 속에서 엄선된 주요 소장품들을 감상하며 관객들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미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개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전시는 국제 미술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전개해 온 한국 현대미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MMCA Collection: Korean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permanent exhibition since the opening of the Seoul branch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in 2013. Since beginning its acquisition activities with its original opening in 1969, MMCA has collected and researched a body of significant artwork and archival materials with a focus on art history and contemporary art trends spanning more than 50 years. Out of the museum's collection of around 11,800 pieces, this exhibition presents about 90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contemporary art from the period between the 1960s and 2010s. With a selection based on subtopics representative of key themes in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such as abstraction, experimentation, figuration, hybridity, concepts, and documentary approaches, it offers viewers a multilayered introduction to currents in Korean contemporary art through different eras.

Korean contemporary art has undergone dynamic changes in response to Korea's own unique social situation, cultural upheavals, transformations in media, and its organic relationships with international art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The exhibition begins in Gallery 1, which explores representative works of Korean contemporary art from the period between the 1960s and 1980s: examples of Korean abstract art, which was created in the name of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works of experimental art, which expanded aesthetic boundaries based on the nature of objects and actions; and figurative and Minjung art works that sought to examine art in the context of life. Gallery 2 showcases major works of Korean contemporary art from the 1990s to the 2010s: key collection works by Korean artists who began to receive major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 in the context of pluralization and globalization; conceptual works centered on objects and language; and attempts at different perceptions of reality in the context of documentary and fiction.

As viewers explore a selection of major collection works representative of the complex topography of Korean contemporary art, they will be able to grasp how art has changed and unfolded in Korea's social context. We also look forward to this exhibition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Korean contemporary art as something that has developed in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arger currents in international art.

## 1. 추상: 새로움과 전위

한국 현대미술에서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추상은 새로움과 전위의 미술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 미술이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국전) 등 기성 미술 제도에 저항했던 현대성과 전위의 상징이었다. 특히 한국의 추상미술은 민족, 전통, 냉전, 근대화, 제도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층위들과 교차하였고, 전후 시대의 불안이나 도시화 등 당대 현실과 맞물리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 동시에 추상미술은 서구와 일본 미술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 번역 과정과 맞물려 집단적인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김환기, 남관, 유영국 등 전후 제1세대 추상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이성자, 최욱경 등 여성 추상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이 소개된다. 또한 6.25 전쟁의 체험을 강한 붓질과 회화 표면의 물질성으로 표현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걸친 앵포르멜 회화와, 이후 등장한 기하 추상을 통해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당대 전위미술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성’ 담론과 연결하여, 존재를 드러내는 장(場)으로서 새로운 추상회화 개념을 제안한 1970-80년대 주요 단색화 작품들, 그리고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한 1980년대 수묵 추상화도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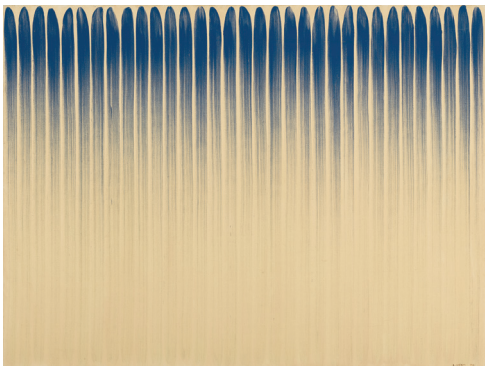


최욱경, 〈미처 못 끝낸 이야기〉, 1977, 한지에 색연필, 크레용, 147×266 cm.  
CHOI Wook-kyung, *Unfinished Story*, 1977, Colored pencil and crayon on paper, 147×266 cm.

# 1. Abstraction: Newness and the Avant-Garde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70s, abstraction represented newness and the avant-garde in the world of Korean contemporary art. Works of abstract art were symbolic of modernity and an avant-garde that resisted the artistic establishment, including the tradition of academism and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t Exhibition (Kukjon). Korean abstraction also intersected with multiple layers of Korean society that related to ethnicity, tradition, the Cold War, modernization, and various institutions. It developed in dynamic ways that interacted with the contemporary reality of postwar anxieties and urbanization. At the same time, abstract art also took the form of collective movements that intersected with processes of cultural translation in relation to Western and Japanese art.

This section presents work from the first generation of abstract painting in Korea, including examples by artists KIM Whanki, NAM Kwan, and YOO Youngkuk. Also presented are important works by female abstract painters such as RHEE Seundja and CHOI Wook-kyung. Viewers can further observe the contemporary avant-garde's resistance against the establishment generation through examples of Informel painting from the late 1950s and 1960s—where artists used powerful brushstrokes and the materiality of the painting surface to represent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along with the geometric abstraction that emerged in its wake. Additionally, in connection with discourses on “Koreanness,” they can see major works of *Dansaekhwa* (Korean monochrome painting) from the 1970s to the 1980s, when artists proposed a new concept of abstract painting as a field for asserting their presence, as well as works of ink-and-wash abstraction from the 1980s, when artists expanded the scope of the *Hangukhwa* (traditional Korean painting) medium in relation to tradition.



이우환, 〈선으로부터〉, 1974, 캔버스에 석채, 194×259 cm.  
LEE Ufan, *From Line*, 1974, Pigment on canvas, 194×25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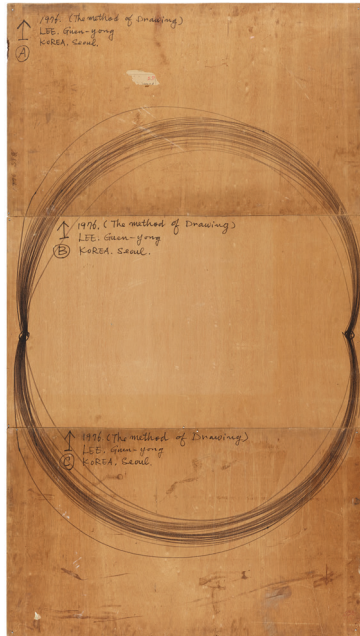


이응노, 〈군상〉, 1986, 종이에 먹, 211×270 cm.  
LEE Ungno, *Crowd*, 1986, Ink on paper, 211×270 cm.

## 2. 한국실험미술: 사물·시간·신체

1960-1970년대 한국은 냉전 시기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통제적 정치 체제하에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었고,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등장하며 새로운 사회 문화적 흐름을 형성했다. 정치 억압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미술 역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미술계는 추상미술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행위미술, 설치미술, 개념미술 등 회화,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넘어서려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1967년 《한국청년작가연립전》을 시작으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AG, 1969-1975), 제 4집단(1970), Space & Time 조형미술학회(ST, 1969-1981), 대구현대미술제(1974-1979) 등의 전시 및 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 실험미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대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작업, ‘신체’를 이용한 해프닝 및 이벤트와 연관된 미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나 과정을 담은 작품 등 미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유도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건용, 〈신체 드로잉 76-2(화면을 뒤에 놓고) / 신체 드로잉 76-6(양팔로)〉, 1976, 패널에 마커펜, 71.3×118 cm (3).

LEE Kunyong, *The Method of Drawing 76-2 (Drawn with the Artist's Back toward the Plywood / 76-6 (Drawn with Both Arms)*, 1976, Marker pen on panel, 71.3×118 cm (3).

## 2. Korean Experimental Art: Objects · Time · Bodies

The 1960s and 1970s were a period when Korea was undergoing rapi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under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hat emphasize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era. These developments took place primarily throug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 Saemaul Movement. At the same time, new social and cultural trends were being shaped by the advent of youth culture, as exemplified by acoustic guitars and blue jeans. At a time when political oppression intersected with the yearning for freedom, Korean art began exploring new directions with the changing currents of the times.

While abstract art remained the mainstream, the Korean art world of the late 1960s to 1970s saw various forms of experimentation beyond such traditional artistic forms as painting and sculpture, as developments unfolded in fields such as performance art, installation art, and conceptual art. The full-fledged emergence of Korean experimental art began in 1967 with the *Union Exhibition of Korean Young Artists* and continued with the prolific exhibitions and group activities of the Korean Avant-Garde Association (AG, 1969–1975), the Fourth Group (1970), Space & Time Group (ST, 1969–1981), and the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1974–1979). This section shows works that encouraged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essence and role of art, including ones that exhibited existing objects unchanged rather than presenting artificial creations; arts associated with happenings and events that incorporated the human body; and works that captured the flows and processes of time.



곽덕준, <계량기와 돌>, 1970(2003 재제작), 계량기, 돌,  
125×38×58 cm.  
KWAK Duckjun, *Meter Series*, 1970 (reproduced in 2003),  
Meter, stone, 125×38×58 cm.

### 3. 형상성과 현실주의

1980년대 한국 현대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에서 배제되었던 형상성을 회복하고 사회, 역사, 정치적 서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미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후기 산업 사회의 도래, 도시화와 대중 매체 확산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형상미술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형상성의 추구는 1970년대 말, 사물과 인물의 치밀한 묘사를 특징으로 하는 극사실회화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났고, 현실 비판과 사회 참여 등 삶의 현장에서 현실주의 미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1980년대 민중미술로 나아갔다. 현실과 발언(1979), 광주자유미술인협회(1979), 임술년(1982), 두령(1982) 등의 소집단 활동은 민중미술 운동의 지평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1980년대에는, 서민의 삶과 연결된 무속, 풍속, 불교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주목을 받았고, 이는 전통과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예술을 삶의 문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1980년대 미술 인식의 변화 속에서 인간 소외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신표현주의적 경향도 등장했으며, 젠더와 여성 정체성 문제에 주목한 여성주의 미술의 흐름도 형성되었다. ‘형상성과 현실주의’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형상성 회복이 단순한 미학적 변화가 아니라, 당대 생동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대의 표상이었음을 보여 주는 주요 소장품들이 소개된다.



민정기,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 1981, 캔버스에 아크릴릭 물감, 130×162 cm (2).

MIN Jungki, *Mr.K Satisfied After Watching a Movie*, 1981, Acrylic paint on canvas, 130×162 cm (2).

### 3. Figurativeness and Re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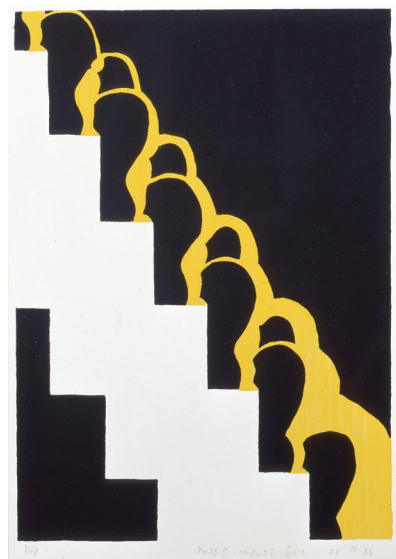
The Korean contemporary art of the 1980s underwent a new transformation with the arrival of realist art seeking to restore the figurativeness that had been eliminated from modernist art and to reflect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narratives. Figurative art established itself as a key trend amid the social transformations represented by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he arrival of a late industrial society, urbaniz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mass media. The pursuit of a new figurativeness was first manifested in the hyperrealist paintings of the late 1970s, which were characterized by detailed depictions of objects and people. It continued with the Minjung Art of the 1980s, which attempted to practice a realist aesthetic in the settings of everyday life, with elements of social engagement and critical statements about reality. The activities of such small groups as Reality and Utterance (1979), the Gwangju Freedom Artists Association (1979), Imsulnyeon (The Year Imsul, 1982), and Dureong (1982)

expanded the horizons of the Minjung art movement to the nationwide level. In the 1980s, also receiving attention were so receiving attention were works on themes relating to everyday lives—including shamanism, customs, and Buddhist practices,—which awakened interest in tradition and nationalism.

Amid the shifting artistic perceptions of the 1980s and the attempts to view art within the context of life, an emerging trend of neo-expressionism explored themes of human alienation and identity. Also taking shape during this time were currents in feminist art that focused on matters of gender and female identity. This section on “Figurativeness and Realism” spotlights important works from the MMCA collection that show the restoration of figurativeness in Korean contemporary art to have been not simply an aesthetic transformation but a historical representation that reflected the vibrant reality of the times.



고영훈, 〈스톤북〉, 1985, 책 낱장에 아크릴릭 물감, 142×98 cm.  
KO Younghoon, *Stone Book*, 1985,  
Acrylic paint on book leaves, 142×98 cm.



주재환,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 1986, 종이에 채색 판화, 53×37 cm.  
JOO Jaehwan, *Spring Rain Dropping Down the Stairs*, 1986,  
Color woodcut on paper, 53×37 cm.

#### 4. 혼성의 공간: 다원화와 세계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계는 민주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 종식, 대내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한국의 젊은 신세대 작가들은 기존의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실험하며 새로운 미술 운동을 펼쳤다. 이불, 최정화 등이 참여한 뮤지엄(1987)을 비롯하여, 메타박스(1985), 난지도(1985), 로고스와 파토스(1986), 황금사과(1989), 서브클럽(1990) 등 젊은 신세대 작가들이 주도한 1980-1990년대 여러 소그룹 미술 운동은, 매체를 다변화하며 한국 미술의 역동적인 지형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들의 작업은 대량 소비 사회, 대중문화, 젠더와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또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한국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한국 미디어 아트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는 한국 미술이 국제 미술계와 본격적으로 접촉하며 동시대미술의 흐름에 발맞추게 된 시기였다. 올림픽 개최(1988)와 해외여행 자율화(1989), 문민정부(1993-1998)의 세계화 정책,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발달 등은 글로벌리즘을 가능하게 한 사회 문화적 동력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전과 1995년 광주 비엔날레 및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설립은 한국 미술이 국제 미술계와 동시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 주었다. '혼성의 공간: 다원화와 세계화'에서는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서 민족주의와 집단 논리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다문화주의와 복합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미술을 강익중, 김수자, 백남준, 서도호, 이불, 최정화 등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 조망한다. 미술의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흐려지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며, 비서구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혼성의 시대에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은 동시대 국제 미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수자,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 2007, 단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9분 17초.  
Kimsooja, *Bottari Truck - Migrants*, 2007, Single-channel video, color, silent, 9min. 17sec.

## 4. Space of Hybridity: Pluralization and Globalization

Since the late 1980s and 1990s, the Korean art world has undergone sudden transformations amid the waves associated with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Externally, the Cold War was ending, while the domestic situation was one of political reforms toward democratization. Alongside discussions on globalization, the neoliberal economy, pluralism, and postmodernism, there was also explosive growth in underground culture and popular culture. During this time, younger artists from Korea's new generation broke with the rigidity of established ideologies to embark on new artistic movements that experimented with different media and genres. Members of the new artistic generation spearheaded activities by various small groups between the 1980s and 1990s, including Museum (1987), with artists such as LEE Bul and CHOI Jeonghwa, as well as Meta-Vox (1985), Nanjido (1985), Logos and Pathos (1986), Golden Apple (1989), and Sub Club (1990). Their diversification of media brought about dynamic changes in the landscape of Korean art. The work of these artists focused on newer themes related to a society of mass consumption, popular culture, and gender. In addition, PAIK Nam June's video art was fully introduced to the Korean art world,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a art.

Meanwhile, the period from the late 1980s to 1990s was also a time when Korean art was connecting in earnest with the international art world and aligning itself with contemporary art trends. Developments such as Korea's hosting of the 1988 Summer Olympics,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1989, the globaliz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1993–1998), and advancements in internet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vided the social and cultural impetus that made globalization possible. Against this backdrop, the exhibition of the 1993 Whitney

Biennial in Seoul, the establishment of the Gwangju Biennale (1995), and the creation of a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1995) expanded opportunities for Korean art to connect in real-time with the international art scene. The section "Space of Hybridity: Pluralization and Globalization" explores Korean art from the period since the 1990s, when the currents of globalization brought about a departure from nationalism and collective logic and a shift toward growing interest in individual identity and cultural diversity, where pluralism and multiculturalism became focuses of active discussion. In particular, it surveys the era through key collection works by such artists as KANG Ikjoong, Kimsooja, PAIK Nam June, SUH Doho, LEE Bul, and CHOI Jeonghwa. In a "space of hybridity," where the hierarchy between art's center and periphery was breaking down, diverse and disparate cultures were blending, and interest in non-Western art was intensifying, Korean contemporary artists began attracting significant notice from the contemporary art world.



서도호, <바닥>, 1997-2000, PVC 인물상, 유리판, 석탄산판, 폴리우레탄 레진, 8×100×100 cm(8). 리만 머핀 뉴욕(2000) 전시 전경. 작가 및 리만 머핀 뉴욕, 서울, 런던 제공. © 서도호.  
SUH Doho, *Floor*, 1997-2000, PVC figures, glass plates, phenolic sheets, and polyurethane resin, 8×100×100 cm(8). Installation view at Lehmann Maupin New York (2000). Courtesy of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 Do Ho Suh.

## 5. 개념적 전환: 사물과 언어 사이

1990년대 이후 한국 미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전 시대의 이념적 갈등이나 한국적 정체성 등 집단의 논리로 수렴되지 않는 개인의 미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상과 문화 등이 미술의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번 섹션에서는 거대 담론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지한 유머를 추구하며, 일상 도처에 숨어 있는 사회 부조리 등을 아이러니하면서도 철학적으로 되짚는 개념적 성격의 작업들이 소개된다. 서구 개념미술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비물질화를 추구한 반면, 한국의 개념적 작업은 재료나 물질적 형식을 중시하면서도 일상의 사물과 언어적 사고를 활용하여 기존의 의미와 질서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람자 스스로가 비평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김범, 김홍석, 박이소, 안규철, 정서영 등의 작품들은 사물의 본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낯선 의미와 상황을 부여하여 고정 관념을 흔들거나, 사물과 그것을 규정하는 언어 사이의 불완전한 관계를 드러낸다. 또한 심미적 완성도보다는 허술한 조형성을 통해 기존의 미술 형식과 관습을 해체하거나, 익숙한 언어 관습을 낯설게 하여 사회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위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개념적 작업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성찰했고, 이를 통해 기존 미술과 차별화된 미술 언어를 만들어 냈다.



박이소, <당신의 밝은 미래>, 2002, 전기램프, 나무, 전선, 가변 크기.  
BAHC Yiso, *Your Bright Future*, 2002, Electric lamps, woods and wires, Dimensions variable.



김범,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 2002, 혼합재료, 14×30×13, 23.5×13×13, 13×22.5×19 cm.  
KIM Beom, *An Iron in the Form of a Radio, a Kettle in the Form of an Iron and a Radio in the Form of a Kettle*, 2002, Mixed media, 14×30×13, 23.5×13×13, 13×22.5×19 cm.

## 5. Conceptual Shifts: Between Objects and Language

With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the Korean art of the period since the 1990s started focusing on personal art that did not align itself with the previous era's ideological conflicts or collective logic relating to areas such as Korean identity. Everyday life and culture emerged as new artistic themes. The works presented in this section depart from the weightiness of grand discourse to pursue elements of serious humor, adopting conceptual approaches that explore the hidden irrationalities of society through an ironic and philosophical lens. In contrast with the focus on ideas and pursuit of the non-material in Western conceptual art, Korean conceptual art was characterized by approaches that emphasized materials and physical forms while also incorporating everyday objects and linguistic thought to question established meanings and orders and guide viewers to think in critical ways.

The works featured in this section—created by artists such as KIM Beom, GIM Hongsok, BAHC Yiso, AHN Kyuchul, and CHUNG Seoyoung—preserve the original appearance and functions of objects while also subverting fixed ideas by imbuing those objects with unfamiliar meanings and situations, or they show the incomplet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objects and the language that defines them. Some deconstruct established artistic forms and conventions by pursuing a deliberately crude form or style rather than aesthetic perfection, while others focus on rendering familiar linguistic conventions strange in an ironic attempt to show the invisible hierarchies operating in social relations. These conceptual works reflect on reality in new ways without emphasizing ideology, creating new artistic languages that are distinct from those that came before.



양혜규, <여성형원주민-1.구변(口辯), 2.사골신기(神氣), 3.철지난 포화(飽和), 4.음력, 5.숙성, 6.상기된 결실>, 2010, 옷걸이, 바퀴, 전구, 전선, 조화, 방울, 끈, 밧줄, 금속 체인, 털실, 말린 생강, 금속 고리, 알루미늄 반사기, 양철 광통, 속이 빈 공, 조개 껍데기, 지점토, 말린 인삼, 채색한 목재 공, 화장 퍼프, 말린 목이버섯, 숲, 헤어 롤, 금속 집게, 유리 비즈, 스팅글 패치,  
 1. 185×106×106 cm, 2. 192×123×150 cm, 3. 197×103×103 cm, 4. 191×84×84 cm, 5. 235×105×105 cm, 6. 180×110×110 cm  
 YANG Haegyu, *Female Natives-1. Oratoricals, 2. Possessed Hillbilly, 3. Saturation Out of Season, 4. Lunar Calendar, 5. Maturing, 6. Fruitful Glow*, 2010, Clothing racks, casters, bulbs, cable, artificial plants, bells, cord, rope, metal chain, knitting yarn, dried ginger, metal ring, aluminum reflector, tin can, cane ball, seashells, papier mâché, dried ginseng, painted wood ball, cosmetic sponge, dried tree-ear mushroom, fringe, hair roller, metal clamp, glass beads and sequin patch, 1. 185×106×106 cm, 2. 192×123×150 cm, 3. 197×103×103 cm, 4. 191×84×84 cm, 5. 235×105×105 cm, 6. 180×110×110 cm

## 6. 다큐멘터리·허구를 통한 현실 재인식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동시대미술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정치,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과 가능성을 재정의하며 전개되었다. 이번 섹션은 미술, 공연,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여러 장르를 횡단하는 다매체적 작업과 다큐멘터리와 허구를 넘나드는 복합 서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의 이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한 일련의 작품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시기에는 디지털 환경 아래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되묻거나,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현재의 위기를 성찰하는 미디어 영상 작업들도 주목을 받았다. 또한 불교 설화나 전통, 신화의 맥락 안에 재난, 이주, 개발,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현실 문제를 투영한 작업들은 실제 속에 허구를 개입시킴으로써 익숙한 현실을 재인식하려는 예술적 시도로 이어졌다.

한편, 세계화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위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다큐멘터리 예술 실천의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재고하며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려는 미술이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작업은 한국 근현대사의 잔재와 상상적 시공간을 병치하거나, 사회적 서사가 담긴 장소에 신체를 개입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성찰하려는 진지한 질문들을 던졌고, 이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적 양상을 만들어 나갔다.



노순택, <달웃한 공>, 2005-2006(2007 인화), 종이에 디지털잉크젯프린트, 50.6×76.6 cm (10).

NOH Suntag, *StrAnge Ball*, 2005-2006 (printed in 2007), Digital inkjet print on paper, 50.6×76.6 cm (10).

## 6. New Perceptions of Reality through Documentary and Fiction

The Korean contemporary art of the period since the mid-2000s emerged amid a process of redefining the role and possibilities of art in a context of rapid changes to society, politics, and the media environment. This section highlights multimedia works that traverse multiple genres—such as visual art, performance, music, and film—and other creations that explore complex narratives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offering a mor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the hidden layers of the world we face. Also drawing attention amid these currents were works that questioned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virtual in digital environments, along with media arts that reflected on present-day crises while envisioning future societies. As they projected different real-world issues—relating to disaster, migration, development, and social inequality—into contexts of Buddhist narratives, tradition, and mythology, these works embarked on artistic experiments with gaining new perceptions of familiar realities by introducing elements of fiction.

Meanwhile, the multiple levels of social crisis that have spread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 advent of globalization have been a source of inspiration for documentary art practice since the mid-2000s. In this context, attention began focusing again on art that sought to reexamine Korea's region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reflect on art's social role. Such works would pose serious questions about Korean society through methods that included juxtaposing remnants of Korean modern history with imaginary times and places or intervening bodily into settings associated with social narratives. In the process, they have contributed to articulating the contemporaneity of Korean contemporary art.



문경원+전준호, 〈뉴스프럼노웨어〉, 2011-2012, 2채널 비디오, 오브젝트, 도큐먼트, 가변 크기 설치.

MOON Kyoungwon+JEON Joonho, *News from Nowhere*, 2011-2012, Two-channel video, objects, documents,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경극중, 〈삼라만상〉, 1984-2014, 패널에 혼합재료, 오브제, 콜라주 등에 크롬 도금, 가변 크기 설치 (변기개유상: 92 X 33 X 33, 패널: 50 X 50 X 10cm (400).)

KANG Gyeong, *Sam-ra-man-sang*, 1984-2014, Mixed media and object on panel, collage, chrome-plated on copper,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Pensive Bochsattva: 92 X 33 X 33, panels: 50 X 50 X 10cm (400).)

## 교육

### 작품감상 프로그램

#### - 감상교환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한 음악, 소설, 시 등으로 작품을 공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감상을 교환하는 교육 공간

- 일시 및 장소: 전시 기간 동안 / 1전시실 입구(현장 참여)

#### - 감상:문

전시 작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의 감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교육 공간

- 일시 및 장소: 전시 기간 동안 / 2전시실 출구(현장 참여)

#### - 표류

목적과 목표 없이 정신이 흘러가는 대로 머물다 생각의 반짝임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 일시 및 장소: 전시 기간 동안 / 2전시실 출구(현장 참여)

### 한국현대미술 강연 시리즈

한국현대미술사의 흐름과 주요 소장품을 조망하는

성인 대상 강연 시리즈

- 일시 및 신청방법: 전시 기간 동안 / 사전신청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혹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earning

### Viewing Programs

#### - Where Interpretations Collide

This learning space is designed for sharing interperert while immersing in synesthetic experience from various forms of arts recommended by artists.

- Date & Venue: Througout exhibition/  
Gallery 1 Entrance (Drop-in participation)

#### - How Impressions Last

This learning space is for people to record and share impressions of some of the most striking works.

- Date & Venue: Througout exhibition/  
Gallery 2 Exit (Drop-in participation)

#### - When Thoughts Drift

This learning space for allowing the mind to linger without aims or goals and to observe the ways our mind might spark.

- Date & Venue: Througout exhibition/  
Gallery 2 Exit (Drop-in participation)

### Korean Contemporary Art Lecture Series

This lecture series for adult visitors surveys currents in Korean contemporary art history and major works from the MMCA collection.

- Date & Registration: Througout exhibition /  
Participation by prior application

Details on the schedule and content can be found on MMCA's website and social media accounts.

## 미술관 운영 시간

월,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 입장료

개별권 2,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시-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4,200원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 후원

신영증권

## 협찬

LG OLED  
동국씨엠  
무림페이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2,000won  
Every Wed & Sat 18:00-21:00: Free  
Under 24 or over 65: Free

##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4,200won per hour

##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Sponsored by

Shinyoung Securities

## Supported by

LG OLED  
DONGKUK CM  
Moorim Paper

## National Museum of

##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http://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https://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https://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https://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https://tv.naver.com/mmca)

후원 Sponsored by



협찬 Supported by

LG OLED

DONGKUK CM 동국씨엠

